

## 〈부농가〉의 성격과 17-18세기 사족층의 가사 향유\*

곽 지 숙\*\*

### 차 례

- |                      |                        |
|----------------------|------------------------|
| 1. 서론                | 3. 조선후기의 농촌현실과 〈부농가〉   |
| 2. 농부가류 가사와 〈부농가〉의 거 | 의 이상                   |
| 리                    | 4. 17-18세기 사족층의 가사 향유와 |
|                      | 〈부농가〉                  |

### 국문초록

〈부농가〉는 향촌사족에 의해 창작된 다른 농부가류 가사가 그들의 처지나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농가〉는 부유함을 바탕으로 한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노래하여, 실제의 사회상과는 다른 허구의 이상적인 농가를 그리고 있다. 실제 농부들의 생활상이 아니라, 농가를 배경으로 즐기는 풍류가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 속 농부의 모습은 농부가류 가사보다는 전가시조와 더 친연성이 있다. 또한 〈부농가〉는 향유양상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있어서도 향촌사족이 창작한 농부가류 가사와는 달라서 개인 문집이 아닌, 『해동유요』, 『가사유취』와 같은 향락적 성격이 짙은 가집에 실려 전하고 있다. 이것은 <부농가>가 향촌이 아닌 도시의 풍류공간에서 더 활발하게 향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부농가, 향촌사족, 경화사족, 풍류공간, 농부가, 전가시조, 조선 후기, 가사, 향유

## 1. 서론

<부농가>는 『해동유요』와 『가사유취』에 실려 전하는 부유한 농부의 한가로운 일상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으로, 『해동유요』를 소개한 이해화가 <부농가>의 작품고를 발표한 이후<sup>1)</sup>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농가>를 처음 소개한 이해화만이 이 작품을 해제하면서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폈을 뿐이고, 이후 다른 연구자들은 <부농가>가 지닌 작품의 고유한 성격을 살피기보다는 이 작품을 농부가류 가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작품의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쳤다.<sup>2)</sup> 이 때문에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작품 전체를 살피지 않았고,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향유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고찰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17세기에 접어들면 농부, 농가 등 농민의 삶을 다루는 시조나 가사 작

- 
- 1) 이해화, 「『해동유요』 소재 작품고」, 『국어국문학』 96집, 국어국문학회, 1986.  
이해화, 「『해동유요』 가사 개별 작품고(2)」, 『한성어문학』 9집, 한성어문학회, 1990.
- 2) 길진숙, 「조선후기 농부가류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신성환, 「조선후기 농촌공동체의 운영과 농부가류 가사」, 『우리어문연구』 44집, 우리어문학회, 2012.

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이 시기에 시작된 사족층의 분화와 무관하지 않다. 농부가류 가사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작품유형으로 주로 향촌사족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농부가류 가사를 향촌으로 내몰린 사족들이 중앙에서 소외되거나 몰락한 자신의 처지에서 오는 갈등과, 농경생활에 대한 자족을 나타낸 작품이라는 식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부농가> 역시 다른 농부가류 가사와 함께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부농가>를 살펴보면 화자가 농부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농부가류 가사와 다른 점이 더 많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부농가>의 성격을 재고하고, <부농가>의 창작과 향유양상에 대해 고찰하여 <부농가>와 다른 농부가류 가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17-18세기 사족층의 분화에 따른 가사 창작과 향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농부가류 가사와 <부농가>의 거리

기존연구에서 <부농가>는 부농가형의 농부가류 가사로 분류되어 연구된 바 있다.<sup>3)</sup> 농부가류 가사 연구는 대부분 조선후기 향촌사족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해명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부농가형은 농민적 삶으로 전환한 향촌의 사대부가 농가의 즐거움을 자족하면서 농업을 통한 생산활동을 옹호하여 몰락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작품유형으로 읽혀졌다. 그러나 일반적인 향촌사족 창작 농부가류 가사에서 형상화되는 ‘농부’의 이미지와 <부농가>에서 그려지는 ‘농부’의 이미지에는 차이가 있다.

---

3) 길진숙, 앞의 논문.

향촌사족이 창작한 농부가류 가사에는 농사를 지어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성현들의 삶에 빗대어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한 예로 김기홍의 <농부사>는 순임금, 후직, 이윤, 제갈량 등 농업을 일삼았던 성인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부귀를 버리고 농사를 선택하거나 혹은 타락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념적 표상의 의미를 지니는 성인의 躬耕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귀농한 사대부들이 겪는 士와 農 사이의 갈등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sup>4)</sup>

네브터 聖賢너도 農業을 몬져흐니  
 大舜은 聖人으로 歷山의 가 바를 갈고  
 后稷은 農師ㅣ 되어 耕種을 힘쓰시니  
 華野 伊尹이와 南陽 諸葛亮이  
 한가히 녀름지여 農桑을 일삼으니  
 世上의 重한 일이 이 밋스 쯔 이실가

김기홍, <농부사>

김기홍의 <농부사>에는 대순, 후직, 이윤, 제갈량과 같은 농업을 일삼았던 성인들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이들이 몸소 농사를 지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 ‘世上의 重한 일이 이 밋스 쯔 이실가’라고 하면서 농사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김기홍의 <농부사>뿐만 아니라 이후 창작된 대부분의 농부가류 가사에도 이와 같이 농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에 종사해서 恒産을 다스리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작품은 ‘농사’라는 躬耕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기홍의 <농부사>와 같이 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농부가류 가사의 창작 주체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歸農을 선택한 향촌의 사족층이었다. 이들은

4) 류숙영, 『김기홍 <농부사>의 창작배경과 작가의식』, 『문창어문논집』 38집, 문창어문학회, 2001, 164쪽.

벼슬길이 막혀 점점 몰락해 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해야만 했다. 학문을 폐하고 대신 궁경을 해야만 하는 스스로의 처지를 옛 성현들의 모습에서 찾아 이를 합리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부농가>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농가> 역시 도입부에서 중장통, 도처사 등의 옛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농가>의 화자는 이들이 몸소 농사를 짓는 모습을 그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궁경행위에 주목하지도 않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지도 않으며, 농사의 중요성을 알리거나, 농경을 통해서 향산을 다스리라는 권고도 하지 않는다.

鄉曲에 터을어더 明堂잡아 집 지으니  
背山臨流은 仲長統 사든텐가  
草堂 八九間은 陶處士을 본바든가  
썩나모 八百株을 두로헤쳐 심거두고  
가온대 다섯이랑 獨樂園 이럿든가

<부농가>의 도입부에는 김기홍의 <농부사>에서와 같이 과거의 인물들이 거론된다. 그러나 <부농가>에서 그려지는 과거의 인물들은 궁경에 힘쓴 성현들이 아니다. <부농가>에서 거론되는 중장통이나 도처사(도연명)와 같은 인물들은 농부로서 궁경을 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강호를 즐기면서 安貧樂道를 지향했던 사람들이다. 또한 ‘독락원’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사마광의 <독락원기>를 보아도 농사보다는 독서와 낚시 등의 즐거움이 주로 나타나 있다. <부농가>의 지향점은 ‘농사’가 아니라 다른 곳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농가>에 나타나는 공간도 농사에 중심을 둔 생업의 공간과는 다르다. <부농가>가 그리고 있는 구체적인 농가의 내부 모습을 살펴보면, 농가의 집 주변과 내부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이 부분의 서술은 대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다’는 구조로 나열되어 있다.

뒷東山 果木이요 압밭썰 菜蔬田이  
 술 길너 亭子호고 대 심거 울호엿너  
 울안히 노적이오 울밭긔 벼가리라  
 사립문 오리썰히 槐花아리 우물파고  
 문마조 방하란 집 지어 거러두고  
 봉당에 뵈틀이오 방구역 술바랑이  
 부엌넙 첨하기슭 온갖 장기 먹야들고  
 庫房넙 喂養에은 샛기가즌 마쇼들과  
 수업슨 돛 개 즐싱 다각각 제기시라

<부농가>가 그리는 農家에서는 추수를 한 뒤에 탈곡하지 않은 곡식을 집 안팎 곳곳에 쌓아두고 있다. 울 안에는 노적이, 울 밖에는 벼가리가 쌓여 있고, 외양간에는 새끼를 가진 말, 소, 닭, 개 등과 같은 가축들도 산재해 있다. 그밖에 묘사되고 있는 집안의 정경을 살펴보더라도 집 안에 우물, 방앗간 등의 시설을 겸비하고 있으며 온갖 농기구들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상당한 규모의 가옥이다. 이처럼 <부농가>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은 소박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함을 자랑하는 듯이 보인다. 화자는 이런 부유함을 바탕으로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다.

며느리 질삼이며 썰들노 누에치기  
 씨아질 물리질 틈틈이 바느질과  
 아들놈 사회손들 녀름짓기 나모호기  
 그무질 산업질노셔 예에로 글너는체  
 늙근인들 일업스라 막대집고 건널면서  
 西疇에 기음보고 東阜에 파름호너  
 압너히 고기 잡고 뒗너히 개식오고  
 압피히 썰을 잡고 뒗피히 놀늘 잡너

위에서 묘사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농가의 일상이다. 그러나 <부농가>에서 며느리, 딸, 아들 등의 가족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집안일이나

농사일에는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서술도 없다. 특히, ‘늬근이’로 표현된 화자는 스스로 김매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대를 짚고 쉬엄쉬엄 거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휘파람을 불거나 고기잡이, 꿩사냥 등의 여흥에 더욱 골몰하고 있다. 이렇듯 <부농가>는 농사일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 주변의 사물이나 한가로운 일상에 대해 더 주목하면서, 농사를 짓는 행위보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농가>의 화자는 농사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치의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물질에 사냥을 하면서 글을 읽거나 막대 짚고 거닐면서 휘파람을 불고 고기를 잡는 모습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을 자족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 몸소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만 하는 농부로서의 삶에 대해 당위를 부여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산수가 좋은 명당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누리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부농가>의 작품 구성은 화자가 언급한 바 있는 중장통의 <樂志論>과 매우 유사하다. 중장통(仲長統, 179~220)은 후한시대의 학자로 벼슬길을 마다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가 남긴 <낙지론>은 명당에 거처하는 곳을 정하고 그 곳에서 벗들을 부르거나 낚시질을 하면서 편안한 삶을 향유하는 것을 노래한다.<sup>5)</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낙지론>이 추구하는 편안한 삶이라는 것이 곤궁한 가운데서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는 安貧樂道의 삶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를 전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직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5) 使居有良田廣宅 背山臨流 溝池環匝 竹木周布 場圃築前 果園樹後 舟車足以代步涉之難 使令足以息(四)體之役 養親有兼珍之膳 妻妾無苦身之勞 良朋萃止則陳酒肴以娛之 嘉時吉日則烹羔豚以奉之 躡蹻畦苑 遊戲平林 濯清水 追涼風 釣遊鯉 弋高鴻 風於舞雩之下 詠歸高堂之上 安神閨房 思老氏之玄虛 呼吸精和 求至人之彷彿 與達者數子 論道講書 俯仰二儀 錯綜人物 彈南風之雅操 發清商之妙曲 逍遙一世之上 睥睨天地之間 不愛(受)當時之責 永保性命之期 如是則可以凌霄漢 出宇宙之外矣 豈羨夫入帝王之門哉 仲長統, <樂志論>

바탕이 되어야 한다. <부농가>에서 그려지고 있는 부유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바로 이런 삶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락원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드러난다. 사마광은 “공자가 말하기를 나물 먹고 물마시고 굵은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고 하였고, 안자는 대그릇에 밥 담아 먹고 바가지로 물을 마셔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이것은 성현들의 기쁨이지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sup>6)</sup>고 하였다. 소위 말하는 가난함 속에서의 만족은 성현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사마광은 그가 혼자 즐기(獨樂) 위해 만든 공간을 나열한다. 오천 권의 책이 있는 독서당, 연못을 파서 물이 흐르게 한 농수헌, 어부의 오두막처럼 연못 가운데 만든 섬 조어암, 앞뒤로 대나무를 심어 햇빛을 가려주는 송죽재, 120개의 발 두둑에 약초를 심은 채약포, 꽃을 심은 곳에 지은 정자 요화정, 주변의 산들을 보기 위한 견산대 등의 공간은 화려하기 그지없다.<sup>7)</sup> 이러한 모습은 농사를 지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향촌사족들의 농부가류 가사가 그려내고 있는 모습과 같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농부가류 가사를 당시 사대부들이 처한 사회적인

6) 孔子曰 飯蔬食飲水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顏子一簞食一瓢飲 不改其樂 此聖賢之樂 非愚者所及也. 사마광, <獨樂園記>

7) 熙寧四年 迂叟始家洛 六年買田二十畝於尊賢 坊北闢以爲園 其中爲堂 聚書出五千卷 命之曰讀書堂 堂南有屋 一區引水北流貫宇下中央爲沼 方深各三尺 疏水爲五流 注沼中狀若虎爪 自沼北伏流出北階懸注庭下狀若象鼻 自是分爲二渠 繞庭四隅 會於西北而出 命之曰弄水軒 堂北爲沼中央有島 島上植竹 圓周三丈 狀若玉玦 攬結其杪如漁人之廬 命之曰釣魚庵 沼北橫屋六楹厚其墻茨以禦烈日 開戶東出南北列軒 牖以延涼颺 前後多植美竹爲清暑之所 命之曰種竹齋 沼東治地爲百有二十畦 雜塉草藥辨其名物而揭之 畦北植竹 方徑丈 狀若碁局 屈其杪交相掩以爲屋 植竹於其前夾道如步廊 皆以蔓藥覆之 四周植木藥爲藩援 命之曰采藥圃 圃南爲六欄 芍藥牡丹雜花各居其二每種止 植兩本識其名狀而已 不求多也 欄北爲亭 命之曰澆花亭 洛城距山不遠而林薄茂密 常苦不得見 乃於園中築臺構屋 其上以望萬安輾轅至於太室 命之曰見山臺. 사마광, <獨樂園記>

상황과 연결 짓고 궁핍한 현실로 인해 귀농하게 된 사대부들의 자기합리화의 산물<sup>8)</sup>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부농가>는 이러한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작품으로 보인다. <부농가>의 이본으로 보이는 <명당가>의 경우, 이 작품에서와 같이 산수가 아름다움 ‘명당’에 터를 잡고 주변 곳곳에 농작물을 기르거나 농가에서의 일에 대해 서술한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제목에서도 ‘농사’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後樂을 위한 전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3. 조선후기의 농촌현실과 <부농가>의 이상

<부농가>에는 논이며 밭에 심는 작물에 대한 서술이 나타난다. 길 아래 위에는 논과 밭이 있고, 재 밭에는 면화, 기슭을 따라서 삼, 피, 조, 밀, 보리, 콩, 팥, 녹두, 메밀, 깨까지 다양한 작물을 심어 놓았다.

길 아리 논홀 갈고 길 우회 밭홀 갈고  
깃뱃티 綿花 갈고 기슭조치 삼을 갈고  
즌 데란 피을 갈고 므른 디란 조홀 갈고  
밀 보리 거든 결의 콩 팥 녹도 모밀 썩  
피출 가즌 온갓 곡식 이랑 제금 심거논디  
슈슈디 薏麻子로 제울삼아 심거잇다

이 농가에서는 특히 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면화는 농가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좋은 작물이어서 조선전기에도 면화의 재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조작업에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조선전기의 농

---

8) 조혜숙, 「농부가에 나타난 후기가사의 창작의식과 장르적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창원, 「조선후기 사족창작 농부가류 가사의 작가의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등.

업기술로는 한 일가에서 벼농사와 면화 재배를 같이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이로 인해 노동력을 절감하여 일반 농가에서도 벼농사와 함께 면화의 재배가 가능하게 된다.<sup>9)</sup>

조선후기에는 <부농가>에서 그려지는 바와 같이 이처럼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작지의 확대, 농업경영 방식의 개선과 상업적 농업생산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기존의 양반 지주계층에 더하여 요호부민이라고 불리는 부농층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부농층은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일반 농가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에서 요호부민이 형성되고 그들의 부유함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농업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한 일반 농민들은 농지를 잃고 궁핍해진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부농가>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조선후기 농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일부의 ‘부농’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토지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유랑하여 안주하지 못했다. 국가의 재정수입을 토지에서 얻었던 조선은 전결수의 감소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각종 세금과 관련된 부정부패는 심해졌고, 양민의 부담이 배가 되었다. 두 차례의 호란과 효종의 북벌, 숙종의 도성수비를 위한 山城의 役事는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였다. 이 때문에 17-18세기의 조선은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와 함께 만성적인 재정고갈과 적자상태가 계속되었다.<sup>10)</sup> 17세기 이후에 현실비판류의 가사가 창작되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었다.<sup>11)</sup>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농가>에서는

9) 김건태, 「16-18世紀 兩班地主層의 農業經營과 農民層의 動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7쪽.

10) 서한교, 「17·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 『역사교육연구』 15집, 역사교육학회, 1990, 125-127쪽.

11) 채현석, 「조선후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08쪽.

이런 조선후기의 궁핍한 현실이 나타나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밤 대초 뜻드를 제 비 감도 다 너었네  
九月이라 秋收호니 今年도 豊年일라  
새곡식 穫果實 산짐승 물고기  
오려술 물게 뜨고 죽밥 조히 조쳐  
家廟薦神山所祭祀 祖先과 歆享호고  
田結收稅 閑丁구실 未收업시 다 밋쳤네  
洞內永葬 親戚婚姻 다도리 부조호고  
여기저기 헛튼 벼뭇 홀과부의 제깃시라  
둥거사 동년씩지 고로고로 다 호었네  
納粟호야 堂上호고 老職으로 金貫子라

<부농가>의 화자는 추수를 마친 후에 제사를 지내고, 각종 세금을 완납한 뒤 남은 곡식을 과부, 중, 종들에게까지 두루두루 나누어 준다. 이것은 부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조선후기의 모습이 아니었다. 조선후기에는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민이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자발적인 진휼을 하는 것은 勸分이라 하는데 조선후기에는 농민들의 궁핍이 심해져서 진휼을 위해서 권분을 정책적으로 실시해야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실제로 부를 독점하고 있었던 양반지주계급은 권분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 집행대상은 대부분 부민과 소민들이었고, 이 때문에 오히려 권분이라는 정책 자체가 각종 세금에 더하여 양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사채 대부의 장려, 17세기 후반부터는 관봉과 권분령의 집행, 그리고 영조 8년(1732)부터는 권분수직제 시행 등의 형태로 변화를 모색하였지만 그 폐단은 점점 심해졌다.<sup>12)</sup> 그런데, <부농가>에는 이런 조선후기의 실상과는 전혀 다

른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부농가>에는 조선후기의 궁핍한 사회와 권분 정책의 강제 집행 등과 같은 당시 농촌사회의 폐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농가>는 궁핍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유한 화자가 자발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안정되고 태평한 시대를 그리면서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主人翁 豪華호양 좇어리기 일너므슴  
 저색혀 빈넙치고 오늘도 뉘홀시고  
 밭양에 오늘이오晝夜長常 오늘이라  
 忘世間之甲子호고 醉壺裡之乾坤이라  
 康衢童謠 뉘아든가 즉금이 太平이오  
 五絃琴 南風歌을 南薰殿호시는가  
 擊壤歌 엇더튼지 帝力을 내물너라  
 나쁜 술 가지고 밭양에이 리호식  
 어질사 疎太傅야 니어호리 뉘계신고  
 아마도 人間豪傑은 主人翁 인가호노라

<부농가>의 화자는 지금의 현실이 태평하여 帝力을 모를 정도라고 한다.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적인 태평성대와 지금의 현실을 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소태부를 이을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작품을 끝맺고 있다. <부농가>에 그려지고 있는 이런 태평함은 앞서 나온 “納粟호야 堂上호고 老職으로 金貫子라”는 구절과 어울리지 않는다. ‘납속’이라는 행위와 태평한 시대현실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납속’은 권분보다도 먼저 진휼곡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이었다. 조선전기에는 빈민의 진휼과 군량의 확보를 위해서 납속책을 간헐적으로 시행하였다. 납속은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 되어 신분제의 동요를 초래할 수

12) 이세영, 『조선후기의 권분과 부민의 실태』, 『역사문화연구』 3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납속책이 확대되어 실시되게 된다.<sup>13)</sup> 그러므로 신분제의 동요라는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납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의 현실이 납속이 필요할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앞서 살펴 본 실제 조선후기의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부농가>가 그리는 태평함이 실제 현실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부농가>는 궁핍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납속을 언급하면서 이와는 상반되는 태평함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 <부농가>에서 그려진, 납속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잊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태평한 농촌의 모습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이상적 세계이다. 즉, <부농가>는 당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 허구의 이상적 농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부농가>에서 그려지는 농가의 모습 역시 실제 사회상과는 다른 허구의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것은 향촌사족에 의해 창작된 다른 농부가류 가사가 그들의 처지나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榮華들 없다호라 잔치노리 호오리라  
내 아니 즐겨 놀면 日月이 흘러가니  
老親과 獻壽호고 朋酒斯饗 호오리라  
못오리 업느나 술부조 흘러든다  
어우리 송치 잡아 숨거니 굶거니  
머로다리 꽃열미오 더덕도랏 피나물이  
누러호 인절미며 벌거호 슈슈씩이라  
씩에란 꿀 느르고 술잔의 菊花씻니  
먼 피히 구름 나셔 병풍삼아 둘러잇고  
절노우는 피식소릭 저피리 더을손가  
게술노 차일호고 ㅁ을명석 두로퍼라  
鹿鳴은 呦呦호고 伐木은 丁丁호니

13) 서한교, 앞의 논문, 129쪽.

므로 너머 成勸農 지 너머 李座首  
 申風憲 趙堂長이며 朴約正 ㅁ자왔네  
 孫同知 長全知 加資은놈거이와  
 鄉黨은 莫如齒라 年次로 座을호고  
 遠村의 거리들과 近村의 ㅁ을사름  
 식사돈 냇벧넌니 다주서 청호오니  
 群賢이 畢至호고 小長이 咸集이라  
 아희들 물장고에 女妓妾 거문괴라  
 婢夫놈 통저블고 동놈의 초김이라  
 雇工놈 山遊花에 洞內總角 매더지라  
 족하손 님타령에 손즈들 춤을 추니  
 안희는 상을 보고 열아들 잔 부어라  
 상넉희 어린것들 果實을 듯토논고  
 동년아 술 걸너라 질동희 탁줄만정  
 박잔에 ㅁ득 부어 엽다말고 니어스라  
 鄭忠義 古調노리 향음이 천연호고  
 崔선비 風月 읊기 콧소리도 제 흥이라

<부농가>에서는 추수가 끝난 후의 풍족함을 누리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거의 전체 작품의 절반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다. <부농가>의 화자는 잔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성권농, 이좌수 등 인근 사대부들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집안의 노비들과 고공, 동네 총각까지 불러 마을잔치를 벌인다. 갖은 음식을 장만하여 실컷 먹고 즐기는 풍성한 마을잔치에 대한 묘사는 농가에서 행해지는 농사일에 대한 묘사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다. <부농가>는 농부들의 생활상보다 농가를 배경으로 즐기는 풍류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농가>의 풍류는 홀로 즐기는 것이 아니다. <부농가>의 화자가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독락원’에서 ‘독락’이란 홀로 즐긴다는 뜻이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독락’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문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벗 삼아 성정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

여 홀로 즐기며 자득하고자 했던 모습을 그렸지만, 그 이면에는 ‘여민락’의 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과 인을 바탕으로 ‘여민락’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왕도정치의 실현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sup>14)</sup> <부농가>의 마을잔치를 묘사한 부분의 ‘鹿鳴은 呦呦하고 伐木은 丁丁하니’는 『시경』의 <녹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녹명>은 여러 신하들과 좋은 손님들에게 잔치를 하는 시로 이 시의 내용 역시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부농가>에서 그려지는 이러한 마을잔치의 모습은 아이들, 여기첩, 비부 등이 악기를 연주하고, 고공, 자손들이 구별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화합의 장이다. 여기에 이웃의 양반들까지 古調의 노래를 부르고 風月을 읊으며 가세한다. 당시 향촌사족들도 이렇게 기생이나 가객들을 불러 이들의 노래를 듣고 즐기는 풍류를 누리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았다.<sup>15)</sup> 더구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 작품에 묘사된 마을잔치 장면 역시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허구적 이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4. 17-18세기 사족층의 가사 향유와 <부농가>

17세기의 사족들은 시조에서도 전원 및 농가 생활을 주요 배경이나 소재로 하여, 그 속에서 소회·흥취·체험을 주된 관심사로 노래한 전가 시조를 창작하였다. 이런 전가시조에서는 강호시조와 비교하여 시적 화자가 훨씬 생활에 밀착된 체험의 공간에서 소박한 생활의 즐거움을 적

14) 이진규, 『한국문학에 나타난 ‘독락(獨樂)’의 의미』, 『국제언어문학』 33집, 국제언어학회, 2016, 176쪽.

15)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55-57쪽.

극적으로 향유하여 다분히 방일하게 흥취를 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sup>16)</sup>

그을 打作 다 흥 후에 洞內 모회 講信흥 제  
김풍헌의 메뎃이에 박권농의 되통춤이로다  
座上에 이존위는 박장대소 흥덜아

이정보가 창작한 이 작품은 田家를 배경으로 하여 가을 추수 후의 마을잔치의 모습을 그린전가시조이다. 이 작품은 전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화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등의 구체적인 농부의 일은 그려지지 않는다. 대신 농사를 다 끝낸 후의 풍류를 그린다. 이것은 <부농가>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마을잔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정보는 향촌에서 농사를 짓던 향촌사대부가 아니었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농부가 등장하는 시가작품들은 향촌사족들에 의해 창작되기도 했지만 이정보와 같이 서울과 근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경화사족들도 이런 작품을 창작하였다.<sup>17)</sup> 경화사족들은 서울에 거주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수미가 빼어난 곳을 선택하여 복거하였는데, 거대한 주택을 경영하면서 서울 시내나 혹은 서울 근교의 풍광이 좋은 곳에 별장을 경영하는 것이 유행하였다.<sup>18)</sup> 경화사족들은 이렇게 서울 생활에서 필요한 경제적 힘을 위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별서를 두고 이를 경영하면서 현실적인 경제 활동을 했다. 때문에 이들이 벼슬에서 물러나 자신을 농사짓는 농부의 형상에 투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sup>19)</sup> 그렇다면 <부농가>에 등장하는 농부 화자는 경화사족의 이런 모습이 강호시가의 전통과 결합하여 나타난 모습일 수 있다.

16)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집, 민족어문학회 237-240쪽.

17) 김창원, 「17-8세기 서울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 『고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122-123쪽.

18) 안혜진, 앞의 논문, 209쪽.

19) 김창원, 위의 논문, 113쪽.

16세기 강호가사는 은거지 주변의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이 때의 강호(자연)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한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농가>는 어떠한가. <부농가>가 그려내는 공간의 모습은 삶의 공간, 즉 생활의 공간이다. 16세기 강호가사는 은거지 주변 자연경관에 주목하지 은거지의 내부로까지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농가>에서는 주변의 자연경관이 아니라 농가 주변과 내부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식솔)들의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부농가>가 그리는 공간은 완상하고 ‘은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속의 화자의 모습도 16세기 강호가사와는 다르다. 16세기 강호가사의 화자는 자연을 완상하고, 그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농가>의 화자는 자연을 완상만 하지 않는다.

17세기 이후 조선후기 강호가사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감흥의 표출보다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정서표출에서 객관적 사실의 전달 쪽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은 은거지의 공간과 사물, 생활양태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특히 17세기 강호가사에는 田家의 공간이 등장하는데 전가는 강호와 달리 자족적인 존립기반을 갖춘 구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의 모습이 객관화 되어 나타난다.<sup>20)</sup> <부농가>에서 그려지는 농가 주변과 내부의 모습, 그리고 생활양태의 묘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7-18세기 향촌사족 가사에는 처사적인 삶과 그에 대한 흥취가 나타난다. 이들은 유가적인 규범을 따르면서 자연을 통해 성정을 수양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삶의 만족에서 유발되는 즐거움을 노래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20) 박연호, 「장르론적 관점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5집, 민족어문학회, 2002, 163-184쪽.

<부농가>에서 자연은 풍류를 고취하는 공간이며, 향촌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부농가>는 향촌사족이 창작한 농부가류 가사와 같이 농부를 화자로 하여 농가의 일을 노래하고 있지만, 작품에서 그려지는 농가의 모습은 실제 농촌의 현실과는 다른 이상에 가깝고, 더구나 농가의 일상 중에서도 유흥을 즐기는 풍류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다. 향촌사족 창작의 농부가류 가사보다는 경화사족들이 창작한 전가시조와 더 친연성이 있는 것이다.

<부농가>의 작가로 알려진 ‘怍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다. 그런데도 농부가류 가사에 대한 고찰이 조선후기 사족층의 신분변화와 관련되어 연구된 탓에 <부농가> 역시 향촌사족이나 혹은 몰락한 양반이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세밀한 고찰 없이 같은 맥락으로 읽혀졌다. 17세기 이후 사족층의 분화가 일어났고, <부농가>를 비롯한 농부가류 가사가 같은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농부가류 가사의 창작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농촌이라는 공간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향촌사족층에만 주목하여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부농가>는 향촌사족들이 창작한 농부가류 가사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농가>가 향촌사족들에 의해 창작된 다른 농부가류 가사와 다른 점은 향유양상에서도 나타난다. 작자가 알려진 농부가류 가사는 대부분 개인문집이나 가문 내에서 가전되는 문집에 실려 전하는데,<sup>21)</sup> 이는 그 작품의 청자 즉, 대상 독자가 가문 내의 가솔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농부가류 가사의 지향점은 후손들에게 학문으로 입신양명 할 수 없다면 농사는 본업이니 그 중요성을 알고 양사부육할 수 있도록 ‘농업’에 힘쓰라고 권유하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부농가>는 이와 달리 개인의 문집으로 전하지는 않고, 가집 『해동유요』, 『가사유취』에 실려 전하고

21) 김기홍의 <농부가>는 『관곡선생실기』에, 김익의 <권농가>는 『정일유고』에, 윤우병의 <권부가>는 윤씨 문중에서 전사한 가전본에 실려 전한다.

22) 길진숙, 앞의 논문, 13쪽.

있다.

또한 이들 가집에 있는 다른 가사작품들을 살펴보면 다분히 향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부농가>가 실려 있는 『가사유취』에는 초기 풍류방문화권에서 가창되었던 <환산별곡>, <낙빈가> 등의 작품이 함께 실려 있다. 17-18세기의 경화사족들 사이에서는 유흥을 목적으로 한 풍류방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부농가>는 이러한 풍류의 공간에서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들과 함께 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농가> 역시 이들 작품과 함께 도시의 풍류방에서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록 현실과는 다른 이상을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농가>의 작가로 알려진 ‘作庵’이 향촌사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향유된 공간은 향촌이 아닌 도시의 풍류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경화사족들의 전가시조처럼 <부농가>는 가사로 풍류방에서 연행되었을 수 있다. <부농가>에 그려지는 농부의 모습은 다분히 향락적이고, 그 속에서 묘사되는 농촌사회의 모습도 매우 이상적이다. <부농가>에서 그리고 있는 이러한 농부와 농촌의 모습은 마치 16세기 강호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어부와 어촌의 모습 같기도 하다. 강호시가의 어부들은 실제 낚시질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유유자적하고 한가로운 일상을 누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부농가> 속의 화자는 풍류를 즐기지만, 직접 농사도 짓는다. 그러나 궁경을 통한 생업활동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삶을 통해 획득한 부로 한가로운 일상

23) 정소연은 『해동유요』의 수록 작품들을 살펴 국어시가의 노랫말을 기록하는 기존의 가집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시로서 한시와 국어시가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시가에 대한 감상과 수용자의 인식태도를 기록하는 시집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랫말을 읊기는 과정에서 하층민의 삶에 해당하는 내용은 빠지고 상층 취향의 풍류를 즐기는 주제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동유요』 역시 향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소연, 『『해동유요(海東遺謠)』에 나타난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가(詩歌) 수용 태도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3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참조.

을 보내며 ‘여민락’이라는 이상까지도 실현하고 있다. 다함께 어울려 노는 풍류의 공간에서 노래하기에 더없이 좋은 작품인 것이다.

물론 창작 역시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농가>에서는 농부의 목소리로 농가에서 부유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작자인 ‘작암’은 도시의 풍류 문화와는 상관없는 향촌에 기반을 둔 향촌사족으로 농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노래에 담기 위해 <부농가>를 창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경화사족들은 전가시조라는 작품군을 형성할 만큼 자연 생활에 밀착된 체험의 공간에서 생활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향유하여 흥취를 누리는 모습을 그려내어 강호시조의 변모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가사에서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17-18세기의 경화사족들은 풍류의 현장에서 시조를 창작하고 향유하였으나, 이에 반해 가사창작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가사를 향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경화사족 창작 가사는 작품의 수도 많지 않고, 뿐만 아니라 향촌사족들의 가사가 시대의 변화에 맞물려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경화사족의 가사 작품은 그렇지 않아서 유형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경화사족들 상이에서 가사의 향유는 가창가사로의 변모가 일어날 만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作菴’이라는 명칭은 필사본 가집 『잡가』에도 등장하는데,<sup>24)</sup> <권주가> 뒤의 “右善山倅之所製而作菴先生正改体者也”라는 기록에 <부농가>의 작가와 같은 ‘作菴’이 나타나 있다. 이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고 확인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sup>25)</sup> 술을 마시면서 생을 즐기

24) 이를 두고 길진숙은 “가사문학에서 이름난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식자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길진숙, 앞의 논문, 7쪽.

25) 신성환은 『잡가』에 등장하는 ‘作菴’이 <부농가>의 작암과 동일인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作菴이라는 호를 가진 다른 인물을 찾을 수 없고, ‘가사’라는 특정 문학 장르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부농가>에서 밀·보리·콩·팥·녹두·메밀·깨·수수·파마자·조·면화·삼 등의 작물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가의 풍경이 세밀하게 묘사하고 봉제사 접빈객

자는 풍류를 노래하고 있는 <권주가>의 작품 내용을 생각하면, <부농가>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 만약 ‘작암’이 풍류를 즐기고, 가집의 편찬자에게 알려질 정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서울에서 떨어진 향촌의 사족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듯 <부농가>의 창작자로 알려진 ‘작암’은 어떤 인물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창작동기나 작가의식을 살피는 데 있어서 추측을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향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농가>는 향촌이 아닌 도시의 풍류공간에서 더 활발하게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농가>의 창작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의도에서 창작된 작품인가에 대한 고찰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향유의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여타의 다른 농부가류 가사와 달리 풍류의 공간에서 불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농가>는 당시 경화사족들의 가사 향유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을 중시하며 마을 잔치에서 좌장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아, 농촌의 삶에 익숙하며 사대부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였다. 신성환, 『조선 후기 농가류 가사의 전개 양상과 의미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99쪽 313번 각주.

## 참고문헌

- 길진숙, 『조선후기 농부가류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건태, 『16-18世紀 兩班地主層의 農業經營과 農民層의 動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창원, 『17-8세기 서울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 『고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103-130쪽.
- , 『조선후기 사족창작 농부가류 가사의 작가의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흥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집, 민족어문학회, 1996, 217-242쪽.
- 류숙영, 『김기홍 <농부사>의 창작배경과 작가의식』, 『문창어문논집』 38집, 문창어문학회, 2001, 143-168쪽.
- 박연호, 『장르론적 관점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5집, 민족어문학회, 2002, 155-193쪽.
- 서한교, 『17·8세기 납속책의 실시와 그 성과』, 『역사교육연구』 15집, 역사교육학회, 1990, 123-181쪽.
- 신성환, 『조선후기 농가류 가사의 전개 양상과 의미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 『조선후기 농촌공동체의 운영과 농부가류 가사』, 『우리어문연구』 44집, 우리어문학회, 2012, 177-208쪽.
- 안혜진, 『18세기 향촌사족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이세영, 『조선후기의 권분과 부민의 실태』, 『역사문화연구』 3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157-263쪽.
- 이영학, 『조선후기 상품작물의 재배』, 『역사문화연구』 5집, 한국회국어

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93, 221-242쪽.

이혜화, 『『해동유요』 소재 작품고』, 『국어국문학』 96집, 국어국문학회, 1986. 85-104쪽.

——, 『『해동유요』 가사 개별작품고(2)』, 『한성어문학』 9집, 한성어문학회, 1990. 85-136쪽.

정소연, 『『해동유요(海東遺謠)』에 나타난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가(詩歌) 수용 태도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3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287-326쪽.

조혜숙, 『농부가에 나타난 후기가사의 창작의식과 장르적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채현석, 『조선후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Bunongga(Wealthy Farmer's Song) and Performance of Gasa of Literati Class in the 17th-18th Centuries

Kwak, JiSuk\*

<Bunongga(Wealthy Farmer's Song)> shows distinct aspects from other Gasa in the types of Nongbuga that were created by village aristocrats. <Bunongga> describes invented ideal farmhouses which were different from real social aspects by singing comfortable and leisurely life based on the wealth. The arts, not the lives of real farmers, with farmhouses as their settings, are central to this work. Images of these farmers are thought to be more familiar to the Rural SHIJO(田家時調) than Gasa in the types of Nongbuga. <Bunongga> is handed down through collections of works of Gasa such as Hae-Dong-Yu-Yo(海東遺謠) and Gasayuchui(歌詞類聚) which are more like pleasure-seeking, not through private collections of works, unlike as Gasa in the types of Nongbuga which was created by village aristocrats. It signifies that <Bunongga> was enjoyed more actively at urban artistic places not in the rural villages.

Key Words: Bunongga, Hyangchonsajok, Gyeonghwasajok nobility, counterfeit farmer, aristocrats, Nongbuga, Gasa, Performance

---

\* Dong-eui University.

<부농가>의 성격과 17-18세기 사족층의 가사 향유 29

■ 논문접수 : 2018년 11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12월 4일

■ 게재확정 : 2018년 12월 7일

